



2019년 9월 15일(제946호) 연중 제24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아버지의 품”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성당,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사제관에 올라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 계단 중간에 있는, 제 키보다 큰 램프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다정한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들어올 때면 당당하게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한잔 마시고 들어올 때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숙이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양심은 있는지 소리 내어 성전을 향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한마디하고 사제관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보는 그림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매일이 새롭고 달라 보이는지 적응이 될 때도 됐으려만 참신기합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당당함과 부끄러움이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삶을 떠올려보니 오늘 독서와 복음말씀이 너무나 깊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뻣뻣한 저이지만 아버지 하느님의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과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것 같고, 그 말끔히 씻어 주신 아버지의 자애로 저를 품어주시어 굳세게 해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느님께 오롯이 당신의 자애만으로 저를 씻어주시라고 하는 것은 제 욕심이라는 사실도 깨우쳐 주시려고 다독거리시는 것 같아 더욱 깊이 다

가옵니다. 어쩌면 저는 복음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 이제는 다른 마음을 가져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살고 있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를 청했던 아들처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제가 참으로 아버지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은 물리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와 함께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한없는 용서를 얻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가득 받아 하느님의 잔치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부터 맞아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처럼 우리 주님의 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있음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기(임승노) 신부  
해군교육사(교육사)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탈출 32,7-11.13-14

**회 답 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제 2 독 시**

1티모 1,12-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 음**

루카 15,1-32

**영 성 제 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이 안나



성인명: 이 안나 (李 Anna)  
신분: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841-1867년

이(李) 안나는 인천 재궁골의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자 충청도 충주 서촌에 살던 교우 송(宋) 베드로의 아들과 혼인하였다. 이때부터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조부 송 베네딕토와 시부모를 모시면서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중하였다.

송씨(宋氏) 집안이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진천 배티 교우촌으로 이주하게 되자, 이 안나도 남편을 따라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교우촌 신자들과 어울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그녀는 1867년 봄에 한양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으며, 진천 관아와 경기도의 죽산 관아를 거쳐 한양으로 이송되었다.

이 안나는 한양으로 압송된 다음에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7년으로 그녀의 나이는 26세였다.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돌아갈 길



더 무슨 고집이  
필요할까

잘못 들어섰다  
느꼈다면

바로 발을 돌려  
돌아가야 한다.

고집 피울 때가  
아니지

지금은  
돌아설 때입니다.

돌아갈 길

**성화이야기**

**성 마태오 복음시기를 부르시는 예수님**



카리비지오, 1599-1600년경 제작 / 캔버스 위 유화, 322 × 340cm  
 신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의 콘티넬리 경당, 이탈리아 로마



세부도 : 처음에는 맨 왼쪽 인물의 손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이 인물의 오른손, 그리고 성 마태오 복음시기의 오른손이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제단화의 외형적인 모습 속에 있는 숨겨진 의미들은 무엇일까? 일단 세리였던 성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는 창에서도 빛이 들어오지 않던 이 공간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빛, 그리고 그 빛 안에 성 마태오 복음사가가 위치하는 것으로 그려진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 마태오 복음사가와 함께 있던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빛을 느끼지도 못한다. 심지어 성 마태오 복음사가조차도,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에도 왼손은 자신의 옆 인물을 가리키고 있고, 오른손은 돈을 세고 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세부도

예수님의 손 세부도

예수님은 유대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던 세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성 마태오 복음사가의 삶을 구원하셨는데, 이러한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의 손에서도 드러난다. 예수님의 손과 손목이 시작되는 부분은 벽에 뚫려 있는, 그러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문의 십자가 빗살 무늬 부분 바로 아래 있다. 이로써 창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들어오는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느 미술사학자가 지적했다시피, 예수님의 손 형태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취했던 손과 각도와 형태가 비슷하고 단지 좌우만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하느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였으나, 원죄에 빠진 아담 및 인류를 제2의 아담이시기도 한 예수님의 손 짓으로 그려내어, 예수님이 수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과도 닿아 있다.

**김은혜(벨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심율 위한 미사 - 연중 제24주일: 성령오 양재모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장 주교성서 제9주년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9월 15일(주일)
- 신입신부 면담  
 때: 9월 17일(화), 신입 군중신부 연수 중  
 대상분당 : 흑룡, 이기자, 백골, 오투기, 충경, 총장 성당

- 신입 군중신부 연수  
 때·곳: 9월 17일(화)~20일(금),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 군인신학생 피정  
 때·곳: 9월 17일(화)~20일(금),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